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강력 추진하겠다”

윤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복합 위기는 수출로 돌파 모든 부처가 역량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2023년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라며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그 진행 과정은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고 산업 현장과 민생의 어려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복합 위기는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와 금융지원, R&D(연구개발)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을 거론하며 “첨단 과학기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도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 “지금은 다누리호가 보낸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 달에 대한민국 우주인이 꽃을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주항공공정이 출범할 것이라며 “우주항공공정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미래 전략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주항공공정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반값 세일·통행료 면제... 마스크 벗는 첫 명절”

국민의힘·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으로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취약 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당과 정부는 다른 때보다 이른 설과 작년에 이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추운 설날을 보내시지 않도록 세심한 설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정부는 설 연휴 성수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조류독감의 확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란의 방출이나 수급 등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고 수산물·농산물 모든 부문에 있어서 충분한 양을 시장에 공급해달라(정부에) 요청했다”고

물가 안정 위해 성수품 공급 확대 취약계층 118만가구 난방비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유통가 할인

전했다.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과 유통업체 할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장바구니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대형마트 쪽에서도 잘 준비해서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설을 쉴 수 있도록 30~50% 사이에 대폭적인 할인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내년 예산이 5000억 원이 늘어 4조원 규모로 발행되며 모바일 카드형도 신설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 등에서 보다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했다.

성 의장은 또 “취약계층이 약 118만가구가 될 텐데 이분들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복지할인 부분에 대해서 연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이번 설 대책에 포함해서 정부가 발표할 수 있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강화 및 긴급복지지원금 인상, 노숙인·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돌봄 지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 연장, 원만한 성수품 공급을 위한 도심지 화물차량 진입 완화 등도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됐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아울러 성 의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설 연휴 기간 동안 면제하고,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해서 국민이 편하게 설을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밖에 고교·미술관·박물관 등 문화 체험 행사 지원,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등도 협의회에서 언급됐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성 의장은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가족들이 모이는 마스크를 벗는 첫 번째 명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1강’ 없는 여 당권주자 ‘연대론’ 고개

‘수도권 출마론’ 공방도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정탈전이 한창인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각종 ‘연대론’이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로서는 예닐곱 명 주자군 모두 완주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누구도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당권 확보를 높이려는 연대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윤상현 의원이 제안한 차기 당 대표의 ‘수도권 출마론’에 안철수 의원이 공개 찬성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를 일종의 ‘수도권 연대론’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조경태 김기현 권성동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수도권 출마를 제안했고, 여기에 안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크게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 안 의원이 각각 인천과 경기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이 결국 비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나머지 주자군에 대한 견제로 읽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강원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윤해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만행’ 격으로 여겨지고, 영남권 중진인 김 의원은 또 다른 윤해관인 장제원 의원의 연대로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는 측면이 있

다. 수도권 출마론을 둘러싼 공방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전날 김 의원이 SBS 라디오에서 “소소하게 수도권 출마를 갖고 총선에 이기니, 지니 이야기하면 그건 참 한가한 이야기”라고 하자, 즉각 자신의 SNS에서 “최전방 수도권 출마 얘기가 한가한가, 아니면 김치 냉장고 얘기가 한가한가”라고 했다. 이는 김 의원과 장 의원이 이를 지지하는 ‘김장연대’를 겨냥 비꼰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도 YTN 라디오에서 2020년 총선 당시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에 출마하고도 당이 참패하지 않았냐면서 “당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달라진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다만 아직 출마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은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 SBS 라디오에 나와 “수도권의 민심을 잘 알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수도권에서 정치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제일 오래 했다”고 강조했다.

당내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대표가 직접 외연확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다. 외연확장이 가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공천하는 등 일종의 ‘사무총장형 당대표’가 필요한 전당대회”라고도 했다. /연합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배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배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3년 계묘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